



전주페이퍼, 설 맞이 어려운 이웃에 사랑나눔 행사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다.

지역의 대표기업인 전주페이퍼(공공장장 이무재)는 23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보육원, 경로당, 인근마을 주민 등 총 15개 단체에 쌀, 선물세트, 김, 복사지, 노트 등 전역민원 상당의 생활용품들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전주페이퍼는 해마다 지역의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며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사원들이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도움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앞장서고 있다. /이만호 기자

설 명절 맞이 훈훈한 이웃 사랑 실천

전주교도소, 소화진달래집 등에 교도작업 제품 화장지·위문금 매년 명절마다 전달

전주교도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진달래집'과 이동복지시설 '삼성휴먼빌'을 방문하여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나누미 장학회는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2008년부터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서 모금하여 지금까지 237명에게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주위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화진달래집'과 '삼성휴먼빌'에 각각 교도작업 제품인 화장지(300개)와 위문금(금70만원)을 전달하며 작은 도움을 주었으며, 매년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매년 '나눔미장학회',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등을 실시하여 이웃 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공모전 선정 인증 5대 맛집 현판 제막식

남원시는 23일, 남원의 맛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남원시 인증 5대 맛집' △그랑캐(돈가스) △집밥 담다(한식) △두레식당(오징어볶음) △명문제과(제과) △정육주어탕(추어탕) 업소에 대하여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현판은 남원의 맛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네이밍과 최 우수 작품으로, 남원의 상징인 관한루 기와지붕과 남원만의 풍미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 그릇에 담아 상징화했다. 특히 남원시 인증 5대 맛집 표시 및 식당별 상호를 양각으로 새겨 넣어 특별함을 더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해 김영태 의장과 남원시의회식약부장 및 업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경식 시장은 "선정된 5대 맛집을 계기로 시 미식관광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명절 맞아 복지시설·단체에 위문품 전달

정읍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이 시장은 "입소자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살피는데 앞장서 주시는 시설 관계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정읍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3일 시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767곳과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장애아를 등 취약계층 525세대에 걸쳐 1억 2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덕천면에 위치한 섬김의집요양원과 상교동의 늘푸른실버홈에 직접 방문해 백미(10kg) 15포와 사과, 한리봉을 포함한 과일 16박스를 전달하며 온정을 더했다. 현장에서는 시설 관계자들과 입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시장은 "입소자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살피는데 앞장서 주시는 시설 관계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정읍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기안전공사, 설 명절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방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회영)가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 시설을 찾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건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남회영 사장과 공사 임직원들이 22일 오후 전북 완주군 사회복지법인 '이산보자원'을 방문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정 거주 시설 현황을 살피고 명절 먹거리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설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된 여성·미혼모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곳이다. 이날 기준 약 35명(15세대)의 어린이와 보호자가 생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승현 남원소방서장, 설 명절 앞두고 현장방문

남원소방서는 지난 22일, 김승현 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소방시설과 화재 취약요인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화재취약요인 확인 △화재진압 장비요인과 소방출동로 확보 상태 점검 △초기·신속 대응체계 강조 △화재 예방 건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산림조합,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 전달

남원산림조합(조합장 허운영)이 23일 춘향장학재단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허운영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모인 기탁금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1963년에 출범한 남원산림조합은 현재 2,444여명의 조합원과 산주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지도와 금융업 무지원 국산목재 생산 및 유통 확대 등 임산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림재해 예방활동 등으로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부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장학기금 전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관내 조은광고(대표 김현영)에 착한가게 33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월 30만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김현영 대표는 "착한가게 지정에 힘입어 더욱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하면 현판 부착 등 가게 홍보와 세액공제를 지원하므로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기부에 관심이 있는 분은 동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새마을금고, 남원시에 김 1200상자 등 기부

남원시는 지난 21일 남원새마을금고에서 김 1,200상자(한가액 2,400만 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남원새마을금고는 매년 지역사회 나눔 실천으로 김 기부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추가로 멀치 120박스를 함께 기부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남원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부해 주신 김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광재활용산업, 순창군에 명절 성금 500만원 기탁

(주)동광재활용산업(대표 김양술)이 지난 22일 순창군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주)동광재활용산업은 금과편 대각갈에 위치한 건축자재 제조업체로,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등을 생산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양술 대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 취지를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시는 동광재활용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용성중, 해외 공연·교육봉사활동 성료

남원용성중학교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지난 14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라오스에서 해외 공연 교육봉사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공연 교육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남원시, 남원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용성중 청소년국악관현악단과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창단 학생 41명으로 구성된 용성중 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라오스 비엔티엔 푸른하늘배움터에서 남도이리랑과 난강하계 등 국악곡을 선보이며 학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용성중 학생들은 방비영 중학교(萬·初中, Vangvieng Junior Middle School)를 방문하여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제기차기와 공기놀이 등 한국문화를 소개했다.

이어 학생자치회 주도로 교실 벽면 페인트칠과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 등 교육봉사활동도 전개했다.

윤은혜 학생자치회장은 "라오스에 다녀온 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용성=정기 기자



남원시 금동(동장 노환순) 관계자는 지난 22일, 관내 (유)신마트타운(대표 김한세)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한세 대표는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가게들이 동참하여 모두가 잘 사는 남원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계속해서 좋은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착한가게 나눔 캠페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매월 3만원 이상 기부하는 활동으로 참여 가게에는 현판과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노환순 동장은 "김한세 대표님의 기부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김제시보건소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보철 지원 시작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21일 보건소에서 김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창배)와 조승모위원장)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치(틀니), 보철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의치 장착 및 시술 편의제공, 1년간 무료 사후관리 등 김제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도모다.

보건소는 오는 2월 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 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계에 시술 의뢰 등 2025년도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사업에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지역보건팀(☎ 540-1393)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연관되어 있어 노년기 건강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구강건강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김제시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